

U-20월드컵 D-300... 홍보 본격화

전주시, 풍남문에서 '미디어파사드' 특별공연

전주시가 대표적인 야간 문화 콘텐츠인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활용해 300일 앞으로 다가온 2017 FIFA U-20월드컵을 홍보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풍남문 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U-20 월드컵 D-300 기념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진행된 특별 공연에서는 전주시립국악단의 공연과 세계댄스대회인 'Body Rock 2016' 우승자인 Just Park의 화려한 군무에 이어, U-20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제작된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가 첫 선을 보였다.

특히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특별 공연은 300일 앞으로 다가온 U-20월드컵을 시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풍남문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역동적인 대북공연과 댄스공연,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에 탄성을 지아냈다. 또, 내년에 전주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FIFA U-20 월드컵은 20세 이하의 세계 축구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성인월드컵에 이어 피파가 주관하는 두 번째로 큰 대회이다. 이 대회를 통해 마라도나와 메시 등 전설적인 축구 스타들이 대거 배출됐다.

오는 2017년 대회는 내년 5월 20일

부터 6월 11일까지 6개 대륙의 24개국 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전주에서는 개막전과 대한민국 대표팀 예선경기 등을 포함한 총 9경기가 열린다.

이에 앞서 시는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월, 6개 대회 개최도시 중 최초로 전담부서인 'U-20월드컵추진단'을 신설했으며, 국비와 도비, 특별교부세 등 총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기장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회준비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실·국·구청별로 총 15개 TF팀을 구성해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월드컵을 한옥마을과 풍남문, 덕진공원 등 전주시의 대표관광지와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인의 높은 관심 속에 열리는 U-20월드컵대회의 꽃인 개막전 개최도시의 명성에 걸맞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대회를 치러낼 것이다"며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전주가 이번 대회를 통해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특별 공연에 이어 오는 8월 10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K리그 경기에서는 U-20 월드컵 전주시 홍보대사 위촉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크루셜텍 바이오메디컬 랩 개소식이 지난날 29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입주 대표자들이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벤처기업 바이오메디컬 랩 설립

크루셜텍, 생체인식기술 기반 바이오메디컬 전초기지 확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벤처센터에 농·생명산업과 IT산업을 융합한 바이오 메디컬 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크루셜텍(주)(대표 안건준·김종빈)은 지난달 29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임성재 크루셜텍 부대표,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도내 ICT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메디컬 랩(Biomedical Science Lab) 개소식을 가졌다.

생체인식 솔루션 전문기업 크루셜텍은 BTP(Biometric TrackPad,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대표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중견기업으로,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지문인식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16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60여개 제품에 BTP를 공급해 지난해에만 약 26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다.

크루셜텍은 우수한 생체인식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사

업 전초기지로 전주를 선택해 바이오메디컬 랩을 설립했다.

바이오메디컬 랩은 크루셜텍의 최첨단 바이오 센싱 솔루션을 의학과 헬스케어,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기술적 시도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첫걸음으로 크루셜텍은 바이오메디컬 랩을 통해 가족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스마트 헬스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또, 미량의 혈액이나 소변으로 현장에서 즉시 질병을 진단 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익산-장수 고속도로에서

암모니아 실은 트레일러 전도

지난달 29일 오전 6시5분께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익산방향 상판2차선 인근에서 암모니아를 실고가던 트레일러가 전도됐다. 24.4km지점에서 A(51)씨가 몰던 탱크로리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에 실린 암모니아는 도로에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운전자 A(51)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트레일러가 도로 가운데 전도되면서 편도 2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돼 1시간 30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경찰수사 받은 인삼농협조합장

진안읍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홍삼 판매 '뺏다방' 업체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북의 한 인삼농협조합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진안군 진안읍 자택 옥상에서 인삼농협조합장 A(57)씨가 목을 매 숨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역 홍삼 뺏다방 업체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5월 말 농협으로부터 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주 기자

덕진경찰서, 여름철 112신고 총력대응 강화

300여명 FTX 실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지난달 28일 덕진동소재 공원등산로에서 112상황실·강력·형사·지구대 및 파출소, 교통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지마 홍기 난동범죄'에 대비한 FTX를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물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서 상황실, 지구대 및 파출소, 형사 등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 신속한 현장대응 및 검거능력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FTX 훈련은 각 범죄유형별로 112신고 접수 후 출동지령, 현장초동조치, 상황전파, 도주로 차단을 위한 긴급배치, 범인 검거 등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이뤄졌다.

덕진경찰서는 폭염에도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범인검거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관내 중요범죄 112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각종 성폭력 범죄, 물지마 범죄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즉각적인 현장대응태세 및 신속한 범인검거체계 구축과 함께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야산 뒷에 걸린 진돗개 2마리 훔친 60대 '덜미'

임실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야산에서 뒷에 걸린 진돗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25분께 임실군 한 야산에 설치한 뒷(울무)에 걸린 B(60)씨의 진돗개 2마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돗개를 잃어버렸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일대 탐문수색 등을

통해 사흘 만에 진돗개를 가져간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야산에 설치한 뒷에 고가의 진돗개가 걸리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뒷에 걸린 진돗개들은 다리에 부상을 입긴 했으나 별다른 외상없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주 기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호응'

전주시, 50개 경로당 대상

전주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시는 8월부터 12월 초까지 노송 경로당 등 관내 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 진료·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반기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보건소는 지난달 각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경로당에 대한 사전 답사를 통해 사업 대상 경로당 50개소를 최종 선정, 8월부터 노송경로당을 시작으로 하반기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전주시 의사회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등이다.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을 통한 기초검진과 심뇌혈관질환·영양·운동·구강·치매예방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주시 의사회와 전주시한의사회, 전주시치과 의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료 및 건강 상담 등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313회(2304명)과 지역의사회 의료서비스 354회(3332명) 등 총 667회에 걸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5636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은 갈수록 노인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